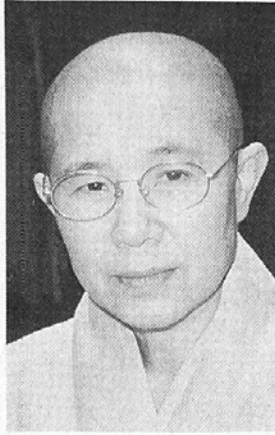


목동 청소년회관 4대 관장 명우 스님



“목동청소년회관은 스님과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지역민을 위해 정성껏 일귀 높은 포교의 터밭이죠. 이 터밭에서 더욱 알찬 포교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꾀해 효과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회관 살림 구석구석 돌봐야죠

항상 귀 열고 수행하는 자세로 일할터”

지난 4년동안 목동청소년회관의 사무국장으로서 회관의 전반적인 살림을 도맡아 왔기 때문에 목동 청소년회관에 관한 거대한 무엇이든 세세히 알고 있는 스님은 도리어 “목동청소년회관을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선임 관장 스님의 업적이 누가 되지 않을까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만 수행하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책임을 다 할것 입니다.”라고 말하며

밝게 웃는다. 스님은 오는 8월초 가질 취임을 앞두고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한 구상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전국비구니회 스님들과 불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겨울 열매 단채장’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기틀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지역문화발전과 청소년교화 및 복지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도필선 기자



빛나는 문화유산 대고려 국보전 개막

‘대고려국보전-위대한 문화 유산을 찾아서’ 전시회가 지난 14일 서울 호암갤러리에서 개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각 스님, 국회의원 강부자씨,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60여사찰 사무장 교육

조계종 본사 및 중요사찰 사무장 교육이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무원 청사 1층 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육은 사찰사무·특별분담금 사찰·직할 사찰등에서 온 60여 사무장들이 이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명의 각 부서별로 총무원장 사 1층 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육은 사찰사무·특별분담금 사찰·직할 사찰등에서 온 60여 사무장들이 이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명의 각 부서별로 총무원장 사 1층 회관에서 개최됐다.

미주불방 사상강연차 출국

관기종교수(동국대)는 미주불교방을 위해 ‘참다운 불자의 삶’에 대해 강연한다. 김양삼씨(시인, 한·인문포 연구회장)는 최근 일제하 한국

일제만행 소설 번역

김양삼씨(시인, 한·인문포 연구회장)는 최근 일제하 한국

인에 대한 만행을 고발한 일본작가 이하라 히로미쓰의 장편소설(아, 선감도)을 번역, 출판했다.

후쿠오카 아시아문화수상

백남준씨(62, 비디오아티스트)가 일본 후쿠오카시가 아시아지역의 문화진흥과 평화공헌을 위해 시상하고 있는 후쿠오카 아시아문화상의 올해 예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원과 양로원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재가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위한 범요집 ‘만남(417쪽)’을 발간하여 군부대에 보급시켰고 10월에 재판 발행할 예정이다.

10월쯤 포교당을 자체적으로 개설할 계획인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는 회원들의 보살님들을 중심으로 ‘관음회(회장 김지비행)’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이채롭다.

관음회는 성마하암정당을 중심으로 간병, 응급응급응급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수 회장은 “앞으로 전국적인 예비역 불자연합회로 성장시키겠다”며 “충북지역의 명실상부한 신행을 이끄는 단체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불사보내기 동행은 청주 276-6812

청주=김원우 기자



‘가산학술상’ 시상식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29일 오후 3시 연구원 강당에서 ‘가산학술상’ 시상 및 (가산학보) 제4호, <교역역주역 대고승비문(고려권2)> 출간 기념회를 갖는다. (02)765-9602

‘한라불교’ 발행인 취임

수열스님(제주 선광사 주지)은 지난 22일 오후 7시 제주 오리엔탈호텔 연회장에서 각종 단대표 및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불교’ 발행인으로

천불전 불사 준비차 귀국

경양스님(위성터보림사 주지)은 보림사 천불전 불사 준비차 귀국했다. 제3기 청소년 지도자과정을 마친후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전각대전 열어

김용현회장(한국전각학회, 서예가)은 올해를 한국전각진흥의 해로 정하고 지난 19~25일까지 서울 낙원동 낙원미술관에서 한국전각대전을 개최했다.

조계종 회계원 사무처장에

종인스님(대덕사 주지)은 지난 18일부로 조계종 회계원 사무처장의 소임을 맡아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충북예비역 불자연합회

충북예비역 불자연합회는 회원들의 보살님들을 중심으로 ‘관음회(회장 김지비행)’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이채롭다.

관음회는 성마하암정당을

중심으로 간병, 응급응급응급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수 회장은 “앞으로 전국적인

예비역 불자연합회로 성장시키겠다”며 “충북지역의 명실상부한 신행을 이끄는 단체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불사보내기 동행은 청주 276-6812

청주=김원우 기자



불교전통요리연구회 창립 주량월자 보살

“전정식구들이 독실한 불자여서 자연스럽게 사찰 전통요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저 자신 또한 식당을 15여년 경영하다보니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식문화의 꽃 널리 알리고파”

철에는 각종의 산나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비롯해 여름철에는 전통 수정과 등 계절의 별미도 있다고 소개한다. 이밖에도 다식, 유과, 부각, 전통 장조림 등 주회장이 선보일수 있는 사찰 전통요리 가지수는 3백여가지가 넘는다.

주보살은 “앞으로 불교전통요리연구회를 통해 우리 전통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부산=박병근 기자>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는 정기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부대에 불사보내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는 회원들의 보살님들을 중심으로 ‘관음회(회장 김지비행)’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이채롭다.

관음회는 성마하암정당을

중심으로 간병, 응급응급응급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수 회장은 “앞으로 전국적인

예비역 불자연합회로 성장시키겠다”며 “충북지역의 명실상부한 신행을 이끄는 단체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불사보내기 동행은 청주 276-6812

청주=김원우 기자

‘움직이는 군법당’ 범공양 앞장

올해 5만권 보급키로...부대위문·양로원 돕기도

어 올해는 5만권을 보낸다는 계획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군부대를 찾아가는 움직이

충북예비역 불자연합회

충북예비역 불자연합회는 회원들의 보살님들을 중심으로 ‘관음회(회장 김지비행)’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이채롭다.

관음회는 성마하암정당을 중심으로 간병, 응급응급응급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수 회장은 “앞으로 전국적인 예비역 불자연합회로 성장시키겠다”며 “충북지역의 명실상부한 신행을 이끄는 단체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불사보내기 동행은 청주 276-6812

청주=김원우 기자

내일을 여는 불자



“구김살없는 ‘새싹세상’ 가꿀터”

신나는 율동·게임 개발...어린이 법회도 창단

“소문난 말쑥꾸러기들도 불교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해집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을 밝게 웃는 얼굴속에서 부처님의 미소도 느낄수 있습니다.”

4년전부터 대구지역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교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해 오고 있는 김은영씨(28). 어린이의 미소를 담았다는 김씨는 그동안 파계사, 심불정사, 관음사등 여러사찰의 어린이 법회를 열성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심불정사의 경우에는 직접 어린이법회를 창단하기도 했고, 파계사의 경우에는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서촌국민학교의 어린이 1백7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레크리에이션 법회를 이끌어왔다.

현재 지방의 불교레크리에이션 보급실정은 매우 열악한 편으로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된 강사들은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 지난 1일 대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김씨가 처음이다.

한 스님이 주관하는 어린이법회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위해’ 불교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김씨는 약기를 들고 있는 사원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 불교와 레크리에이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어린이 불교레크리에이션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하는 김씨는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잔놀음, 신나는 율동, 유익한 게임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김은영씨의 불교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그동안 대한불교청대지구 사무처장, 바른불교실천모임을 비롯 명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연꽃봉사단의 일까지 맡아 다양한 영역에서 부처님의 정법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린이 불자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불자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불교의 미래는 밝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윤호 기자>

게시판

▲교사 특별연수=한국불교 발전연구원(원장 김용정)은 오는 7월20일~26일까지 여름방학교사연수회 개최, 초중고교사를 대상으로 반야심경강의. (02)736-6202

▲불전국역연구원 연수생 모집=불전국역연구원(원장 혜남스님)은 제1기 연구과정과 제1기 연수과정 연수생을 오는 8월12일까지 접수한다. (02)929-9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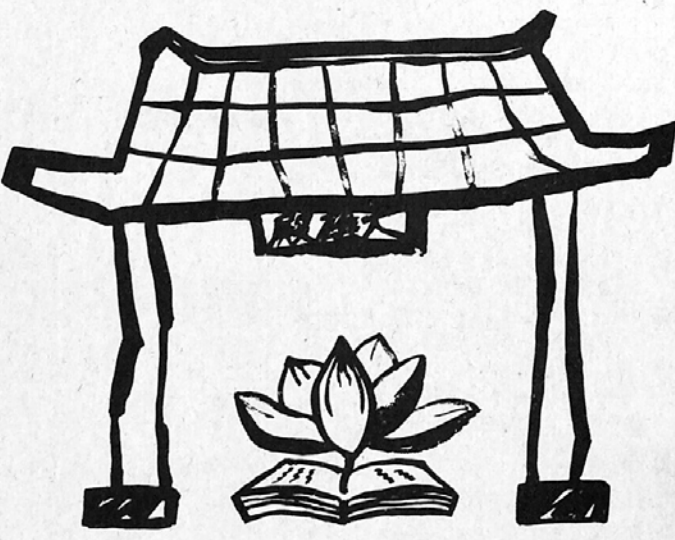
▲종이접기 교실=삼전종합 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오는 8월1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유아 및 국교생을 대상으로 종이접기교실을 실시한다. (02)421-6077

▲'95 후기 신입생모집=조계사 불교대학은 2년과정의 불교학과 95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20-6742

▲이간불교대학=봉은사(주지 무상스님)는 8월20일부터 5개월 과정, 제6기 아간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수·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동안 봉은사 가사당에서 강의한다. (02)616-5652

생활속의 불교 34

부처님과 내가 강력접착제로 붙었으니



절을 찾는 이유는 뭔가? 보살님! 처사님! 하는 그 「님」자 소리 듣고 싶어 서인가? 아니다. 법문 가운데 좋은 말이 많으니 자주 들어 유익해지려고? 아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과 사귀고 그래서 남의 덕도 좀 보고 싶어서인가? 아니다. 절에 가면 높이 앉은 불상이 나를 내려다보고 불쌍히 여겨 언젠가는 구원해줄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부처님·보살님께 시주하고 열심히 빌면 복도 내려주고 좋은 일도 곧잘 생기게 해주니까? 아니다.

절을 찾는 이유는 뭔가? 보살님! 처사님! 하는 그 「님」자 소리 듣고 싶어 서인가? 아니다. 법문 가운데 좋은 말이 많으니 자주 들어 유익해지려고? 아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과 사귀고 그래서 남의 덕도 좀 보고 싶어서인가? 아니다. 절에 가면 높이 앉은 불상이 나를 내려다보고 불쌍히 여겨 언젠가는 구원해줄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부처님·보살님께 시주하고 열심히 빌면 복도 내려주고 좋은 일도 곧잘 생기게 해주니까? 아니다.

절을 찾는 이유는 뭔가? 보살님! 처사님! 하는 그 「님」자 소리 듣고 싶어 서인가? 아니다. 법문 가운데 좋은 말이 많으니 자주 들어 유익해지려고? 아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과 사귀고 그래서 남의 덕도 좀 보고 싶어서인가? 아니다. 절에 가면 높이 앉은 불상이 나를 내려다보고 불쌍히 여겨 언젠가는 구원해줄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부처님·보살님께 시주하고 열심히 빌면 복도 내려주고 좋은 일도 곧잘 생기게 해주니까? 아니다.

합동약국 대구수성구 중동 합동약국 약사 / 김우봉·박경남 대구시수성구 중동 590-1 / 전화 (053) 763-2705